논어 6편 옹야 6장 · 원문·풀이

# 季康子問：「仲由可使從政也與？」子曰：「由也果，於從政乎何有！」曰：「賜也可使從政也與？」曰：「賜也達，於從政乎何有！」曰：「求也可使從政也與？」曰：「求也藝，於從政乎何有！」

독음 · 계강자문 중유가사종정야여 자왈 유야과 어종정호하유 왈 사야가사종정야여 왈 사야달 어종정호하유 왈 구야가사종정야여 왈 구야예 어종정호하유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로는 결단력이 있고 자공은 사리에 밝으며 염구는 재능이 다양하므로 각각 정사를 맡을 수 있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康 편안할 강 강 / 子 아들 자 / 問 물을 문 문

仲 버금 중 중 / 由 말미암을 유 유 / 可 옳을 가 가 / 使 하여금 사 사

從 좇을 종 종 / 政 정사 정 정 / 也 어조사 야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曰 가로 왈 / 果 실과 과 과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乎 어조사 호

何 어찌 하 하 / 有 있을 유 / 賜 줄 사 사 / 達 통달할 달 달

求 찾을 구 구 / 藝 재주 예 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